

홍해

2022/ 겨울호

RED SEA MISSION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1:3

"Through him all things were made without him nothing was made that has been made" John 1:3



19947 E. Crestline Pl. Centennial, CO 80015

Tel: 303-669-1001

redseamission@gmail.com

홍해선교회

자문위원

강위조 박사(전컬럼비아대학교수)

정성욱 박사(현덴버신학교교수)

최기도 목사(전알제리선교사)

대표

조완길 목사(홍해선교회)

사무총장

김병수 목사(믿음교회)

간사

박선목 전도사

운영이사

김병수 목사(믿음교회)

권인숙 목사(새문교회)

이명교 목사(한빛교회)

전담양 목사(임마누엘교회)

조완길 목사(홍해선교회)

후원교회

믿음교회(김병수목사)

새문교회(권인숙목사)

은강교회(박종혁목사)

임마누엘교회(전담양목사)

주형교회(김선희목사)

행복한교회(전형진목사)

홍해선교회(조완길목사)

후원회원

강신정사모. 김용환집사.

김은경집사. 나혜란집사.

이선민권사. 이승우회계사

정영숙사모. 조완길목사.

최기도목사. 최충현성도



雪 동물가족 (사진:조완길목사)

CONTENTS

- 03 하나님의 형상회복(조완길목사)
- 06 주님과 함께 춤추며(전담양목사)
- 08 명년에는 국가지도자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이명교목사)
- 10 복음에 강한 교회를 향하여:
구원파의 왜곡에 대한 반박(정성욱교수)
- 14 모로코와 프랑스의 축구 준결승 뒷이야기
(공일주박사)
- 18 새해의길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김병수목사)
- 21 윌리엄 캐리(노영환선교사)
- 24 빈 살만의 과제(조완길목사)
- 27 한국지부 설립 감사예배 사진
- 28 홍해선교회 설립 13주년 기념 세미나
- 29 중보기도



조완길 목사(D.Miss)
 홍해선교회대표.
 에콰도르 국제 복음신학대학원 교수

본문: 요20:21

제목: 예수님의 Missions

예수님은 이 세상에 메시아와 선교사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 파괴된 관계 회복을 위해 오신 것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의 결과로 이 세상에 처참한 파괴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형제간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 왔습니다.

죽음은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을 무로 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창세 이후 지금까지 사람들은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므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의 현장에서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고 물으셨습니다(요11:25-26). 이 말씀에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존재란 지적이고 인격적이고, 자유 의지를 가진 행위자로서의 존재이며, 도덕적 진실성과 종교적 성결성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며, 다른 피조물에 대해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존엄한 존재이며,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를 말합니다.

영적인 존재로 지음 받은 사람은 세 가지 것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윤리와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고(롬8:28), 범사에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5:16-18)고 말씀 하셨습니다.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윤리를 실천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윤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거룩과 사랑은 대표적인 윤리입니다.

거룩은 레위의 명제이기도 합니다(레11:45). 거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야 했듯이 세상과의 구별을 의미합니다. 우상과 타락한 문화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롬12:2).

사랑의 윤리는 하나님의 본성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요일4:8). 우리가 사랑을 모르고 사랑을 나누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의 화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사랑이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요13:34)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두 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사랑의 계명을 주셨고(The great commendment), 십자가를 지신 후에는 선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The great mission).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바울이 율법 학자로 있을 당시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행22:3).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고후11:2). 사람의 열심은 자기의 능력과 노력으로 헌신하며 자기의 의를 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은사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런 영적 주도성을 상실하고, 육체 주도적이며, 이성주도적인 사람들에게 용서와 생명과 영성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죄를 홀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결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자신의 몸 된 교회를 세우셨으며, 지금도 타락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시고 있습니다.

메시아와 선교사로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오늘도 보내는 선교사와 보냄을 받은 선교사가 명심해야 할 선교 신학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의 근거는 십자가와 부활이며(고전2:2). 선교의 내용은 구원이며(롬1:16). 선교의 수행은 성령님이시며(행1:8). 그리고 선교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고전10:31). 2023 새해에도 땅 끝까지 부름을 받고 영혼 구원과 교회설립과 기독교 사회 건설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네가지 명제가 사역의 중심이 되기를 기원하며 축복합니다.



전담양 목사

임마누엘교회담임목사. 임마누엘기도원원장.
시인. 한국목양문학회장. 흥해선교회이사.

주님과 함께 춤추며

다른 삶의 자리에서 다른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지만 우리들의 고민과 염려는 다 같은 것 같습니다.

꿈이 이루어지길 소망하고, 목표가 성취되며, 앞으로 전진하길 바라는 그런 삶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친구들도 있지만, 우리들은 모두 각자의 은밀한 휴식처에서 내일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에텐동산을 거닐며, 아담을 찾으신 주님께서는 그런 인생의 고민이 가득한 장막을 향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가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힘들어 하며 고민하는 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저 손을 내밀어 함께 춤추자고 하십니다.

인생살이로 지쳐있다면....주님의 손을 잡읍시다. 주님의 발자국 따라 기쁘게 춤춥시다. 우리의 모든 혼돈이 질서가 되며, 모든 고민과 염려 위에 주님의 살롬이 임하며 성취될 것입니다.

주먹 불끈 쥐고 밤을 밀어내 본다

손 가득 찬물을 머금고
어제의 후회를 닦아내고
새벽 공기를 마시며
오늘의 소망을 찾아 떠난다

젊은 날의 꿈은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고
반복된 일상 속에 나를 잊은 채
주름진 내 손은 일상과 동일시된다

눈을 감고 마음 한켠,
작은 소망으로 지어진 쉼터로 나아간다

그것은 나만의 공간
존재를 보여주는 거울이
나를 반기는 초월의 자리
그것에서 조용히 내 인생을 추억해 본다

귓가를 들리는 발자국 소리에
놀라 눈을 떠보니
청아하게 들리는 평강의 예수가 내게 오고 있다

나를 보고 이제 다 안다는 듯
눈웃음으로 내 손을 잡고
즐거이 춤추신다.



이명교 목사
한빛교회 담임목사. 본회이사

명년에는 국가 지도자를 위한 기도가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최근에 Netflix 를 이용하여 전쟁 드라마 ‘Darkest Hour’ 를 보았습니다. 제 2차 세계 대전이 시작된 해인 1940년의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의 행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처칠은 “우린 결코 굴복하지 않습니다. 승리가 없으면 생존도 없기 때문입니다” 라며 의회와 국민에게 용기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신념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을 일치단결하게 하는 리더쉽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런던을 떠나지 않은 채 지하 벙커에서 전쟁을 지휘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며 처칠과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오버랩 되었습니다. 작년 2월 2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별군사 작전’이라며 침공했을 때 전 세계는 우크라이나의 패배를 기정사실로 여겼습니다. 모두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으로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하자마자 무더기로 우크라이나 유력 정치인과 부자들이 국외로 탈출했습니다. 러시아와의 전면전을 우려한 서방은 개인화기 이상의 무기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모두의 예상과 같이 풍전등화 처지에 놓인 듯 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개전 직후 미국의 국외도피 제안을 거부하며 “내젠 (도피용) 탈 것이 아니라 탄약이 필요하다”고 일갈한 이가 그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개전 직후 한 편의 동영상을 찍어 올렸습니다. 내각 인사들과 함께 수도 키이우 밤거리를 걸으며 “대통령, 총리, 국가 수뇌부들이 모두 여기 있으며, 우리는 국가와 독립을 지켜낼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러시아군이 키이우에 접근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대통령으로서 죽음을 불사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자신의 건재함을 국민에게 확인시킨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승리에 대한 확신을 국민의 마음에 심어주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은 곧바로 그의 용기와 결단력 있는 리더십에 결집했습니다. 국외로 도망했던 사람들이 돌아왔고 국민들은 하나가 되어 결사 항전을 시작했습니다. 서방도 이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우크라이나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300일이 지난 지금 많은 전쟁 전문가들은 이미 러시아가 전쟁에서 패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 위협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과 러시아도 폭격기를 카디즈 안으로 종종 보내 군사적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전쟁 상황은 아니지만 한국이 처절이나 젤렌스키 같이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용기와 결단력을 가지고 국민을 결집시킬 수 있는 지도자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올해에는 한국의 지도자들을 위해 더욱 기도하여야겠습니다. 국민을 하나로 결집하는 좋은 지도자가 있어야 국민이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딤후 2:1-2)



정성욱 교수(조직신학 Ph.D)
덴버신학대학원교수, 아시아사역처장
본회자문

복음에 강한 교회를 향하여: 구원파의 왜곡에 대한 반박

어김없이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다. 주님의 초림은 무엇보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탄생의 목적이 구원이었다는 것은 기독교 진리 중 구원의 중요성을 웅변한다.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상 기독교 교리에 대한 수많은 논쟁들이 있어 왔다. 그 중에서 구원에 대한 논쟁은 끊임없이 지속되었다. 그것은 구원의 진리를 왜곡하려는 마귀의 역사가 강했다는 것을 뜻한다. 동시에 그 마귀의 역사에 편승하여 교회를 어지럽힌 거짓 교사들 또한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교회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지난 140년의 한국교회사 동안 구원에 대한 논쟁은 끈질기게 지속되어 왔다. 지금도 이 논쟁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고, 최근 더 뜨거워졌다. 한국교회의 구원론 논쟁에서 가장 첨예한 이슈들 중 하나는 “과연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라는 질문과 관련되어 있다. 우선적으로 분명하게 짚어야 할 사실은 성경은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친다는 사실이다.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빌립보서 1장 6절이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서 “착한 일”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 즉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그러하듯, 이 약속의 말씀 역시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성취될 것이다.

문제는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을 곡해하고 왜곡하는 자들이 항상 존재해 왔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대표적인 자들이 바로 오늘날 소위 “구원파”라고 불리는 집단이다. 구원파에 대한 상세한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구원파의 주장을 자세하게 다루지 않겠다. 하지만 구원파가 어떻게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진리를 왜곡하고 있는지에 집중하고자 한다.

우선 구원에 대한 구원파의 파괴적인 주장들 중 첫째는 깨달음 구원론이다. 즉 구원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죄를 영단번에 덮어버린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구원의 순간이라고 주장한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깨달음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깨달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그 깨달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친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어떤 진리를 명제적으로 깨닫는다고 해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다. 살아 계신 인격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에게 우리의 인격을 굴복시키고, 그분을 우리 안에 주님과 구주로 모셔들이고 영접함으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난다. 즉 예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 맺음이 구원이라고 성경은 가르친다. 그리고 이 인격적 관계 맺음에 선행하는 것은 우리 죄와 죄된 삶에 대한 철저한 회개이다.

둘째, 깨달음 구원론을 강조하는 구원파는 따라서 구원을 받은 순간의 날짜와 시간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 역시 성경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성경 어디에서도 우리가 구원받은 날짜와 시간을 아는 것을 구원의 조건이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성경이 강조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로 신뢰하고 영접하는 일이다.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조건”이다. 사실 “조건”이라는 말도 적절하지 않다. 믿음은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얻는 “통로”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신뢰할 때,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이라는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셋째, 영단번의 죄사함을 강조하는 구원파는 구원의 의미를 총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즉 구원의 즉각성만 강조한다. 구원의 즉각성에 있어서도 죄사함과 거듭남만을 강조할 뿐, 성령의 내주,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스도의 신부됨 등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와 관련된 진리를 무시한다. 더 나아가서 구원의 점진성과 최종성에 대해서는 거의 강조하지 않는다. 또한 죄사함과 거듭남으로 구원이 “완성”되었다고 오해함으로, 구원받은 이후의 삶 속에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회개의 필요성을 무시하고, 방종주의적인 삶을 부채질한다.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죄와 죄된 삶을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로 믿고 신뢰할 때 우리 구원이 “확정”된다고 가르친다. 하지만 확정이지 완성이 아니다. 완성은 장차 주님 재림시 부활하여 영화될 때 이뤄진다. 그리고 성경은 구원의 확정과 완성 사이에 구원의 점진성이라는 과정을 거친다고 가르친다. 그 점진성은 성화, 동행, 견인의 과정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고 성장하는 과정이다. 이 자라남과 성장의 과정에서 우리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회개를 실행해야 한다.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회개는 우리의 영적 성장에 필수적이다.

구원파는 이 사실을 거의 완전히 무시한다. 아니면 “그냥 자백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그 중요성과 가치를 무시한다. 그렇지 않다.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으로 구원이 확정된 성도는 성화와 동행과 견인의 과정 속에서 더 진지하고, 더 빠저린 회개를 실행하게 된다. 그리고 이 회개의 실행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 안에 잔존하는 죄와 싸워 이길 힘을 더욱 얻게 된다. 따라서 성화 과정에서의 반복적인 회개는 우리의 영적 성장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가치로운 것이다. 존 오웬이나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위대한 청교도들은 이점을 적절히 강조하였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구원파로 넘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왜 구원파의 가르침이 매력이 있고, 인기가 있을까? 여러가지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전반적으로 한국교회의 복음이해가 피상적이고 약하다는 점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전반적인 흐름이 율법주의적이라는 점 또한 중요한 이유라고 보여 진다.

특별히 장로교회가 지배적인 한국교회의 풍토에서 “영단번의 죄사함과 거듭남”이라는 진리는 사실상 충분하게 가르쳐지지 않았다. 도리어 주일 성수, 십일조, 새벽기도, 주초금지 같은 종교적 헌신을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식의 율법주의적 가르침이 지배해왔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수십년간 하면서도 죄의식과 정죄감으로 고통속에 살아간다. 이들에게 “영단번의 죄사함과 거듭남”이라는 구원파의 가르침은 그야말로 “해방과 자유의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다. 문제는 “영단번의 죄사함과 거듭남”을 가르치는 구원파의 구원교리가 그 뿌리부터 왜곡되고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구원파에 빠진 사람들이 깨달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



공일주 박사
중동아프리카연구소 소장

모로코와 프랑스의 축구 준결승, 그 뒷이야기

프랑스팀과 모로코팀, 절반이상이 북·서아프리카와 북아프리카 연고

아틀라스 사자들로 알려진 모로코 대표팀은 13명 선수가 북아프리카 태생의 부모를 둔 모로코 디아스포라의 자녀들이다. 모로코 코치 왈리드 알라크라키(Walid Reguragui, 47)는 파리 남쪽에서 태어났고 그의 선수들 대부분은 유럽에 살고 있는 모로코 부모에게서 태어났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 참가한 프랑스 대표팀의 절반은 북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 태생의 부모를 둔 프랑스 국적의 선수들이다. 파리와 다른 도시의 외곽에 살던 무슬림들이 축구 스타가 된 것이다. 프랑스팀의 메가스타인 음바페(23)는 아버지가 카메룬 출신이고 어머니가 알제리 무슬림이다. 그는 가난한 파리 외곽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음바페와 모로코 축구팀의 하키미는 프랑스 리그전에서 뛰었던 절친한 친구 사이이다.

그래서 모로코와 프랑스 대표팀의 경기는 단순히 축구 경기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슈로 번질 기미를 보이기도 했다. 스페인 대표팀을 이기고 난 뒤 아랍무슬림들이 올린 유튜브를 보면 “안달루시아(남부 스페인 지중해 연안 지역을 일컫던 단어)가 그의 주인에게 돌아간다” 와 “모로코가 안달루시아를 되찾을 것이다” 라는 제목을 내걸었다.

무슬림 이주민 자녀들의 활약

모로코 대표팀이 포르투갈 전에서 이긴 후에 수천명의 북아프리카 무슬림들이 파리 주변의 카페와 상점거리로 쏟아져 나와 기쁨을 표현했다. 아랍무슬림들은 모로코와 스페인 경기를 단순히 축구경기로 보지 않고 정치적 의미를 부여했다. 더구나 모로코와 알제리를 프랑스가 식민 지배했기 때문에 모로코와 프랑스 경기가 아랍무슬림들에게 큰 관심사였다.

모로코 팀이 2-0으로 프랑스 팀에게 패하자 관중석에 앉아 있던 여성들과 아이들이 조용히 눈물을 닦고 있는 장면이 TV에 방영됐다.

프랑스에 살고 있는 북아프리카 출신의 무슬림들은 모로코와 프랑스 경기를 앞두고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고 한다.

민족과 조국이나 아니면 시민권을 주고 있는 나라냐를 두고 프랑스를 응원할지 모로코를 응원할지 망설여졌다고 한다. 프랑스에는 75만명 이상의 모로코 이주민이 있다. 그리고 프랑스에는 튀니지와 알제리에서 온 이주민이 100만명 정도에 이른다.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아랍 무슬림은 13,652명(2022년 10월 통계) 중에서 이집트인(2,970명) 다음으로 가장 많은 아랍무슬림은 모로코 무슬림(1,712명)이다.

아프리카의 모로코 대표팀 선전을 아랍인들이 열광하다

12월 8일자 유로뉴스에는 “팔레스타인 국기가 카타르 월드컵 기간 동안 세계에 아랍인의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 무슬림들은 카타르가 아닌 다른 서방 국가에서 팔레스타인 국기를 대표팀이 흔들며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응원하러 나온 아랍 무슬림들 심지어 선수들도 경기장 안에서 팔레스타인 국기를 흔들었다. 이스라엘과 충돌을 빚고 있는 팔레스타인은 아랍 무슬림 전체에게 매우 중대한 정치적인 문제가 돼왔다.

모로코가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이기고 난 후 선수들이 모두 메카를 향해 머리를 땅에 대는 장면이 언론에 모로코 팀의 승리를 알라에게 감사한다는 종교적 신앙의 표현이었다. 그리고 프랑스 대표팀에게 패한 후에도 선수들과 코칭 스텝들이 모두 땅에 엎드려 알라에게 감사한다는 절을 했다. 아랍 무슬림들은 이것을 두고 모로코 팀들이 전 세계 무슬림들을 자랑스럽게 만들었다고 쓰고 있다.

그런데 아랍 무슬림들은 포르투갈 전에서 승리한 후 야신 보노가 아랍어와 모로코 방언으로 인터뷰했다(대부분 유럽 태생의 아랍 무슬림들은 아랍어를 잘 몰라서 아랍어로 인터뷰하지 않았음)고 자랑했다. 아랍 무슬림들은 모로코 대표팀이 아프리카 팀이 아니고, 아랍어를 사용하는 아랍 팀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싶어 했다.

4강에 진출한 것은 모로코 정부의 10년간 투자의 결과

모로코 왕립 축구협회는 무함마드 6세 왕의 후원을 받아 국가 대표 축구팀을 철저히 분석했다. 2009년부터 모로코 왕립 축구협회는 ‘국립 축구 아카데미’를 열었다. 그리고 유럽에서 살고 있는 모로코 부모를 둔 청소년 선수들을 스카우트하기로 했다. 모로코 디아스포라의 자녀들 중에서 축구에 재능 있는 청소년을 발굴하기 시작한 것이다.

들 중에서 축구에 재능 있는 청소년을 발굴하기 시작한 것이다.

모로코 국내에서는 각급 학교와 클럽에서 축구를 확산시키고 국가 리그전을 할 수 있도록 선수층을 두껍게 했다. 게다가 모로코 여성 축구팀이 발족돼 전문적으로 육성됐고, 현재는 2개 팀이 괄목할만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

모로코 축구 협회는 수도 라바트 외곽에 무함마드 6세 축구 단지를 조성했다. 축구 단지 안에는 오성급 호텔과 실내 경기를 할 수 있는 구장 그리고 치과의사가 포함된 의료 시설을 갖추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축구에 투자한 것이 앞으로 더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4강까지 올라간 것은 토너먼트 추첨에서 행운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준비와 훈련의 결과라고 한다.

선수 가족들이 카타르 월드컵 동행

모로코팀의 절반이 디아스포라인 것은 그의 부모들이 먹고사는 문제로 모로코를 떠났다는 것이다. 모로코 축구협회는 어렵고 힘들었던 삶을 살았던 부모와 가족들을 카타르 월드컵으로 초청했다. 입국 카드와 여권이 있으면 무료로 축구장에 입장할 수 있게 도왔다.

모로코 팀 선수들의 가족들이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 옆에 있는 캠프에 머물면서 선수로 뛰고 있는 아들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도왔다. 하킴이 선수가 스페인전에서 승리한 후 그의 어머니와 입맞춤 인사를 하는 장면이 아랍 언론에 크게 보도됐다.



김병수 목사

믿음교회 담임. 홍해선교회 사무총장

2023년 새해의 길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2022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던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보냈습니다. 야곱의 고백처럼 우리의 환난 날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 가운데 우리와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2023년 한 해를 믿음과 소망으로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2023년 한 해 우리가 걸어가 보지 못한 이 한 해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Tony Robbins 라는 유명 라이프 코칭 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앞으로 일년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과대평가하고, 자신이 앞으로 20-30년 동안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한다.” (Most people overestimate what they can do in a year and they underestimate what they can do in two or three decades.) 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바꾸어 보면 이런 말처럼 제게 들립니다. 사람들은 당장 자신 앞에 닥친 어려움에 대해서는 과대평가를 합니다. “내게 당장 이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그런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인 나머지 좀 더 먼 미래에 다가올 좋은 일들, 희망찬 일들은 과소평가해 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두려움에 사로 잡힌 나머지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할 때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당장 내게 있는 고난, 아픔, 시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미래가 얼마나 밝은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내 앞에 있는 아픔과 고난과 시험은 과대평가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와 비전과 소망은 과소평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현재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은 과소평가하시고, 바로 앞에 놓인 고난을 참으시고, 견디시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바라보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기를 원합니다. 히 12:1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삶에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지만 그러한 것을 벗어 버리고 인내함으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달려가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시험, 절망, 고통, 질병, 연약함 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벗어나고 인내함으로 2023년을 힘있게 걸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디에서 그런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할 때 그러한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히 12:2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이십니다. 영어 NIV 성경은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작가(author)요,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 “(perfecter) 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좋은 번역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작가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든 것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의 이야기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과 방향을 자꾸 세상이나 환경이나 다른 사람이나 나의 모습에 고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낙담하고, 좌절합니다. 오직 우리의 눈을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실 예수님께 맞추고 올 한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도 당장 자신 앞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시선을 “그 앞에 있는 기쁨“에 맞추셨습니다. 고난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참으시고 자신의 시선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믿는 자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오늘도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2023년 새로운 한 해, 미지의 한 해를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께 시선을 맞추면 우리 믿음의 작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의 이야기를 아름다운 은혜의 이야기로써 내려가실 것입니다. 당장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고 큰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루하루 신실하게 감당하면 예수님께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2023년 한 해를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실하게 걸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들을 많이 허락하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노영환 선교사
인도선교사. 인도바이블칼리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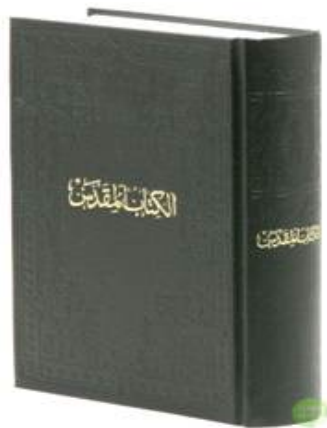
인도지역 선교: 윌리엄 캐리(William Carey2)

세람포에서의 선교사역의 큰 성공은 캐리의 높은 인격과 그의 끊임 없는 노력의 열매였다. 선교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모든 것들을 희생하는 그의 태도가 다른 모든 사람들의 모범이 되었던 것이다. 캐리는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감싸고 실수를 용서할 줄 아는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였다. 캐리와 그의 선교팀이 헌신적인 노력으로 세람포에는 학교가 설립되었고 성경 번역사업이 꾸준히 진행되었다. 세람포에서 캐리는 3개 언어(벵갈어, 산스크리트어, 마라디어)로 성경을 완역하였을 뿐 아니라 다른 많은 언어와 방언들로 신약성경과 쪽복음을 번역하였다. 세람포에서 계속 개종자가 생겨났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느린 속도로 진행되었다. 인도에 침례교 선교를 시작한 지 25년이 지난 1818년 무렵 약600명의 세례교인과 수천명의 입교인 이 예배에 참석하였다. 번역과 복음사경에도 바빴지만 항상 캐리는 더 할 일을 찾았다. 그의 업적중의 하나는 교회 지도자들과 복음 전파자들을 양성하기 위해 1819년 세람포 대학(Serampore College)을 세운 것이었다.

1807년 캐리의 아내 도로시는 세상을 떠나는 슬픔을 당했지만 캐리가 사역을 하는 데는 다행이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선교 가족의 일원으로서 캐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다. 그의 아내가 죽은 후 덴마크의 왕족 출신으로 세람포에 요양와 있던 샬로테 루머(Charlotte Rumohr)와 결혼하였다. 샬로테는 그녀와 시간과 재산을 선교사역을 위해 아낌없이 바쳤다. 그녀는 영리한 여자였을 뿐 아니라 언어학에도 조예가 깊었기 때문에 캐리의 번역사역에 큰 도움을 주었다. 샬로테가 죽은 지 2년 후 캐리는 62세의 나이로 16년 연하인 그레이스 휴지(Grace Hughes)라는 미망인과 다시 결혼하였다. 그녀는 병에 시달린 캐리를 보살펴주었다. 캐리의 인도에서의 사역중 가장 큰 재난은 1812년의 화재로 귀중한 원고들을 소실한 것이다. 그는 화재로 인해 그와 그의 선교팀이 피 땀을 흘려 집필한 다국어 사전, 두 권의 문법책, 완역한 성경 원고들을 일시에 잃어버렸다. 그는 이러한 비극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하였다.

세람포에서의 처음 15년간은 협력과 팀워크가 잘 이루어졌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새로 도착한 선교사들이 세람포팀의 공동생활에 합류하지 않으려고 하였던 것이다. 이로인해 기존 선교사들과 신입 선교사들 사이에 분열이 생기게 되어 신입 선교사들은 캘커타 선교사 연합회(Calcutta Missionary Union)를 결성하고, 독립적으로 사역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결국 세람포 선교팀은 영국의 선교본부와 잠시 관계를 끊고 자체적으로 선교사역을 해나가야 하는 어려움을 당해야 했다. 반면에 세람포 선교팀은 후원해야 할 선교사의 수가 12명이 넘게되었고 의료사업도 하여야 할 상황이되었다. 결국 세람포 팀은 자존심을 접어두고, 영국의 선교본부에 굴복하여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 그러자 영국에서 필요한 돈과 함께 위로의 편지가 도착하였다. 이렇게 하여 의료사업은 재개되었다.

캐리는 1834년 인도의 땅에서 잠들었다. 루스는 캐리가 인도에 끼친 영향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캐리가 인도에서 끼친 공헌은 많은 언어학적, 교육적인 공로, 목회 사역보다 훨씬 크다. 그는 인도의 나쁜 관습과 싸워 과부의 화형, 유아 살해 등을 폐지하였다. 그러나 좋은 문화전통은 계승하고 발전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캐리는 선교의 방법론적인 면에서 그 시대를 앞서 가는 사람이었다. 그는 그의 후배 선교사들과 달리 서구문화를 이식시키려고 노력하지 않고 인도문화를 존중하였다. 그의 목표는 인도에 현지인 목사에 의한 토착교회를 세우는 것과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자신의 일생을 바쳤다. 캐리는 인도 선교에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었다.” 그가 인도에서 헌신한 선교사역의 방법과 결과는 현대선교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 영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의 뒤를 이어 선교사역에 헌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히4:12



조완길 목사(D.Miss)
홍해선교회대표.
에콰도르 국제 복음신학대학원 교수

빈 살만의 과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인 빈 살만이 한국을 다녀갔다. 그는 Neom City의 청사진을 가지고 와서 한국 정부와 투자 협력을 논의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기업과 계약과 양해각서를 주고받았다. 제2의 중동 붐이 예상되는 전조라고 생각한다. 네움이라는 이름은 새로운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Neo와 미래를 뜻하는 아랍어 Mustaqbal 의 첫 글자 M을 합친 단어이다. 빈 살만이 구상중인 네움 시티는 사우디아라비아 북부 타북주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카바만에 가까운 지역이다. 필자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역할 당시 네움시티 지역을 세 차례 방문한바가 있는데 타북 중심도시 근교는 비옥한 땅이어서 밀농사가 잘되고 과일 농사도 잘되었으나 타북의 북쪽은 거친 사막과 암석으로 이어지는 산악지역이었다. 그곳은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미디안 지역이기도 하다. 그곳에 서울의 44배에 달하는 탄소 제로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빈 살만의 야심찬 네움 신 도시 건설이 완성되면 두바이보다도 더 위대한 사막의 기적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빈 살만이 네움의 구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우디아라비아 경제의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와 관광 특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

빈 살만이 이슬람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동력은 그를 지지하는 젊은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의 인구수가 삼천오백만명 정도인데 그중에 14세에서 44세까지의 젊은 계층이 이천 육백만에 이른다.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대한민국과는 대조적인 사회 환경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코란에 명시된 대로 일부다처제와 다산의 원칙에 의한 출산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접하게 되고, 수용하면서 BTS와 같은 세계적인 그룹을 초청해서 남여가 함께 참석할 수 있는 콘서트를 갖기도 했다. 필자가 리야드에 거주할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변화의 주체는 인구의 삼분의 이를 차지하고 있는 젊은이들이다.

그러나 변화가 순풍을 타고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변화를 싫어하고, 견제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반정부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건국될 당시 건국의 아버지인 무함마드 이븐 사우드(Muhammad Ibn Saud) 가 와하비야 운동의 종교지도자인 무함마드 이븐 압드 알 와합(Muhammad ibn Abd Wahab)을 디르이아(al Diryya)에서 만나 자신은 코란의 가르침과 예언자의 언행과 전통에 근거한 통치 이념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약속을 하고 와합과 동맹을 맺었다. 그 후 이븐 사우드는 종교개혁가로부터 ‘이맘’의 칭호를 받았고 종교개혁가의 딸을 며느리로 맞아 혼인 동맹을 맺으며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했다.

그래서 빈 살만 아버지의 형제들이 왕으로 재직할 때에는 종교지도자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며 이슬람 율법을 준수했었다. 그런데 빈 살만 왕제자는 개혁의 이름으로 젊은 층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2011년에 빈 살만 재단을 설립해서 청년들이 경영학, 문학, 과학 기술 등 다방면의 학문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관련 소질을 계발할 수 있도록 도왔다. 2017년에는 여성들이 운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아바야를 벗게 했다. 2018년에는 여성의 영화관 출입도 합법화했다. 그리고 종교 경찰의 체포 권한을 없애고 여성에 대한 남성의 후견인 역할도 상당 부분 삭제했다.

이러한 일련의 개혁은 페미니스트들과 젊은이들에게는 환영받는 일이지만 수구 세력인 종교지도자들에게는 불만의 요소가 되고 있다. 그들은 이집트의 이슬람형제단을 비롯해서 원리주의를 지향하는 무슬림 단체들과 연계가 되어 있다. 1995년 12월에 리야드에서 미군들이 사용하고 있던 빌딩에 폭탄테러가 일어난 것도 무타와(종교경찰)들의 소행이었다. 또한 빈 살만의 주변에는 정적들도 포진되어 있다. 그 하나는 초대 국왕 사우드가 건국할 당시 아라비아에 거주하고 있던 부족 국가들을 점령하면서 발생한 원한이다. 지금도 왕정에 도전하고 있는 부족은 까흐탄(Qahtan), 우타이바(Utaiba), 하룹(Halub) 그리고 삼마르(Sammar) 부족이다. 그 부족들은 나지드 지역과 메카 지역을 통치하다가 사우드가에 점령당한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또한 1960년대 말 이집트 나세르 대통령의 영향을 받아 조직된 나세르 아라비아 반도 인민 연맹(Nasserist Arabian Peninsula People's)도 있다. 이 조직은 북부 삼마르 부족에 영향을 주었다. 그들은 1979년에 메카를 점령하기도 했으며, 1980년에는 약 500여명의 반군으로 무장을 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군과 전투를 벌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빈 살만의 일부 사촌 형제들이 빈 살만의 정적이다. 빈 살만이 왕위 계승 과정에서 친위 부대를 이용해 자신보다 왕위 계승 서열이 높았던 사촌형 무함마드 빈 나예프를 감금하고 왕세자 자리를 빼앗았으며, 왕세자가 되고 나서 권력 안정을 위해 자신에게 도전할 만한 유력한 왕자들 수백 명을 호텔에 가두고 재산을 몰수했다. 대외적으로 예멘 공습 등 충동적인 군사행동과, 2016년 이란과의 국교 단절을 선포하는 등 그의 과격하고 예측 불가능한 대외 정책도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빈 살만이 상기 서술한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 가느냐에 따라서 탈 석유화 추진도, 네옴 시티의 성공 여부도 결정될 것이다.

한국지부 설립 감사 예배

일시: 2022년 11월 3일

장소: 한마음 비전 센터



대표 조완길목사



한국지부대표 홍계현목사



설교하는 전담양목사



찬양하는 김선교사



지부장위촉패 전달

홍해선교회 설립 13주년 기념 세미나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선교회가 설립 13주년을 맞이하여 줌 세미나를 준비하였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하실 분들은 연락을 주십시오.

ZOOM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제: 기독교와 이슬람 세계관 조명

일 시: 2023년 2월 7일 오후5시-7시30분 (미중부시간)

2월 8일 오전9시-11시30분 (서울시간)

연락처: 303-669-1001. redseamission@gmail.com

강 사: 정성욱 교수 (기독교세계관 강의)

공일주 박사 (이슬람세계관 강의)



정성욱 교수(조직신학 Ph.D)
덴버신학대학원교수. 아시아사역처장
본회자문



공일주 박사(아랍어 Ph.D)
중동아프리카연구소 소장



K국 K 선교사

- 1.이슬람권 선교 가이드 책자의 저술을 위하여
- 2.무슬림 전도와 제자 양육을 위하여
- 3.건강 회복을 위하여
- 4.선교지 회복을 위하여



S국 S 선교사

- 1.아라비아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 2.현지 센터가 잘 준비되고 현지인 모임을 시작하게 하소서.
- 3.현지 모임을 이끌어갈 영성과 아랍어 능력을 주소서.
- 4.안전과 평안을 허락하시고 모임에 성령과 부흥을 주소서
- 5.군복무 중인 아들의 건강과 대학 졸업반 딸의 진로를 위해서



Iranian Christians International Mission

- 1.코로나-19을 극복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 2.Iranian Christians International의 발전을 위하여.
- 3.ICN에서 섬기고 있는 미국내 난민의 복음화를 위하여.
- 4.ICN의 사역을 위해 필요한 재정을 위하여.



Arabic Bible Church Denver (ABCD)

- 1.Ayman Armanious 목사님의 영력을 위하여
- 2.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ABCD 교회의 예배회복을 위하여
- 3.Ayman 목사님의 유튜브 방송 선교를 위하여
- 4.덴버에 거주하고 있는 무슬림 선교를 위하여



홍해선교회

- 1.홍해설립13주년 기념 세미나를 위하여
- 2.미주내 심포지엄을 위하여
- 3.아랍어 중급 과정을 위하여
- 4.MMITA 훈련의 재개를 위하여